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업용수 공급 시작..."통수식 행사는 없어"

☞ 황기환 기자 | ⌚ 승인 2023.04.11 | 📄 9면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지난 8일 보문저수지 통수를 시작으로 2023년도 농업용수 급수를 시작했다. 사진은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올해 영농기를 맞아 지난 8일 보문저수지 통수를 시작으로 경주시 일원 7129ha 수혜구역에 본격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주지사는 올해 통수식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73개 저수지와 95개 양수장 등 총 301개소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경주지사는 지난 7일 기준 평년대비 저수율 116.2%를 확보해 금년 영농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기상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영농급수에 철저를 기해 올해 영농이 차질 없이 진행돼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관우 경주지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

해 앞으로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기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 올해 영농급수 시작

장성재 기자 blowpaper@naver.com 입력 | 수정 2023.04.10 15:53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호 및 숙박시설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는 올해 영농기를 맞아 지난 8일 보문저수지 통수를 시작으로 경주시 일원 7129ha 수혜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주시사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73개소), 양수장(95개소) 등 총 301개소 시설물 사전 점검과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4월 7일 기준 평년대비 저수율 116.2%를 확보해 올해 영농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기상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효율적인 급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관우 경주시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앞으로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영농기 맞아 농업용수 급수 시작

✎ 김진태 기자 | ⌚ 승인 2023.04.10 21:26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올해 영농기를 맞아 8일 보문저수지 통수를 시작으로 경주시 일원 7,129ha 수혜구역에 본격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제공=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지사 전경

경주지사는 올해 통수식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73개소), 양수장(95개소) 등 총 301개소 시설물 사전 점검과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완료했다.

지사는 이달 7일 기준 평년대비 저수율 116.2% 확보해 올해 영농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기상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영농급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관우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앞으로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집중호우 등에 적극 대비해 물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태 기자 n2000@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